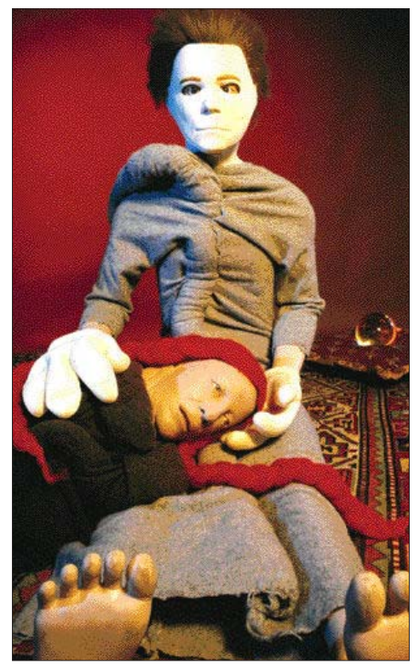
이미지로 보는 萬人의 삶과 욕망

양혜규 작 '상처 받기 쉬운'


신디 셔먼 작 '무제'

2010 광주비엔날레 '테디베어' 연작 등 볼거리 풍성

회화·설치보다 사진 편중 … 지역 작가 박태규씨 유일

올해 광주비엔날레에는 작고 작가부터 현재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까지 1901년부터 2010년 사이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된다. 해외에서는 앤디 워홀과 '해머링맨'의 조각가 조너선 보로프스키와 제프 쿤스, 브루스 나우먼 등의 작품이 출품될 예정이다. 한국작가로는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와 한국관 전시에 참여했던 양혜규를 비롯해 설치미술가 이승택과 함양아, 사진작가 김한용, 작가그룹인 '안경점'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의 특징은 출품작의 절반 가량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진 작품이라는 점이다. 사진 전공 학생들의 교과서로 손꼽히는 작가 워커 에반스, 80년대 미국 포스트모던 사진의 대표주자 신디 셔먼 등 이미 '사진의 역사'된 유명작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지역작가로는 박태규씨가 유일하다.

또 중국 노동자들이 찍은 사진, 캄보디아 학살 희생자들의 마지막 사진 등 비예술적인 요소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전시 기획도 큰 특징이다.

반면, 과거에 널리 알려진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 다시 선보이는 전시가 많아 다소 식상하고, 광주지역 작가는 단 한 명만이 출품작가로 선정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현재=다양한 사람의 삶을 노래한 고은 시인의 '만인보'를 주제로 차용한 이번 비엔날레에는 사진 작품의 출품이 두드러진다. 단일 작품수가 3천여점에 달하는 사진 연작을 비롯해 수많은 사진 이미지를 선보인다.

이데사 헨델스가 선보이는 '테디베어 프로젝트'는 테디베어 인형이 만들어진 지난 1905년부터 작가가 그동안 직접 수집한 3천여장의 테디베어 인형 관련 사진 연작이다. 테디베어 이미지를 통해 이 인형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소비 형태 등을 들여다본다.

또 중국의 통빙그슈의 '60년의 초상화'는 1901년부터 1968년 동안 매년 그가 자신의 초상화를 찍어 정리한 작품이다. 한 인간의 일생 자체를 들여다 보며, 이미지로 기억되는 과거와 역사를 보여준다.

70년대 한국 상업사진의 대표주자인 김한영의 다양한 광고 사진도 볼거리다. 상업 사진을 통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중국의 영화감독 우 웬광이 선보이는 '우리마을'은 아마추어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영상작품이다. 중국 시골 노동자들에게 카메라를 준 뒤 이들이 찍은 사진을 모아 '아마추어들이 본 풍경'을 날 것 그대로 선사하는 기획이다.

◇과거 유물에서 보는 현재=이날 발표된 출품작 중 가장 기대되는 작품은 중국의 국보인 '렌트 컬렉션 코트야드'이다. 쓰촨미술학교 교수, 학생이 공동 창작한 이 작품은 1965~1974년 동안 지주의 탄압에 고통받는 농민의 모습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100여점의 조각품이다. 문화혁명당시 선전·선동 도구로 사용돼 중국 정부의 국보급 문화재이다.

중국 현대사를 사실적으로 표현해 그동안 베니스비엔날레 등이 수차례 섭외하려고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외국에 소개된 적이 없다.

또 캄보디아 투올 슬렝 교도소의 '사형수의 마지막 사진 연작'은 역사 그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켰다. 크메르루즈 정권이 곧 처형될 교도소 수감자 99명을 찍은 초상 사진을 모은 기획이다. 사진으로 대표되는 이미지가 '유일한 목격자'로 역사에 남게 된 과정을 소개한 작품이다.

◇이미지의 과잉? 무엇을 볼 것인가=이번 비엔날레는 과거와는 달리 회화, 설치에 비해 사진 장르에 편중됐다. 수많은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전시기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진들 대부분은 과거에 널리 알려졌거나, 이미 전시된 작품이다. 사진 연작이 많아 작품의 총수가 2만여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자칫 작품 수만 많고, 볼 것은 없는 전시로 전락할 우려도 낳고 있다. 동일 주제로 촬영된 비슷비슷한 사진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대형 설치 작품이나 이색 작품의 수가 눈에 띄게 적다.

지오니 총감독은 "새로운 것만 보여주는 '쇼'는 아니다. 과거의 이미지를 통해 기억의 힘을 배우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맞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8월 지역 작가 리서치를 통해 참여 작가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 55회 호남예술제 본선 진출자

〈심사위원〉
이한나(조선대 교수)
김남경(송원대 교수)
박정순(대불대 교수)
구성희(호남신학대 교수)
조규철(전남대 교수)

성악 초등 1·2학년

2 백승리(장흥2)
3 오상훈(운천2)
6 김예진(광주교대광주부설2)
7 조유진(불로2)
8 민소정(광주효덕2)
11 김시온(광주효덕2)
17 임나영(유안2)
19 김민혁(광주삼각2)
28 신동연(광주삼육1)
33 김민재(만호2)
38 오승현(광주송원2)
39 조서영(살레시오1)
40 나시윤(운리2)
43 임서진(문정1)
45 윤예준(광주송원2)
47 심정윤(불로2)
49 조성준(살레시오1)
50 김부민(빛고을1)
51 이수아(광주송원2)
53 조 은(만호2)
55 박효진(광주삼육2)
56 이지민(살레시오1)
58 손의현(광주삼육2)
60 유재원(여수한려1)
61 이시열(광주교대광주부설2)
62 김해민(문흥중앙1)
65 정유진(불로2)
67 한다원(광주송원1)
72 이승민(문산1)
75 김서이(불로2)
76 나혜인(유안2)
77 최혜민(불로2)

※ 위 순서는 예선경연 순서이며 발표된 순서에 의해 본선 경연을 합니다. 본선은 30일(금) 오후 1시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성악 초등 5·6학년

1 윤지유(풍영6)
7 김승현(운천5)
12 김수연(세광6)
16 이예빈(장덕5)
17 노유빈(선창6)
23 고애림(광주남6)
24 김보라(수완5)
25 옥시원(광주삼육5)
26 한제우(월봉6)
27 유수현(광주송원6)
28 나세영(계수6)
29 서예설(운리5)
35 정서현(유안6)
38 이유리(광주송원5)
42 김예지(풍영6)
43 황현웅(광주송원5)
44 이진우(목포용해5)
45 이주연(양지5)
47 조수희(금당5)
49 김다은(양지5)
50 김인아(신창6)
51 김시은(광주수창5)
53 양세미(문산6)
56 김수민(불로6)
57 주수한(고실6)
59 박지환(광주송원5)
62 정세민(진월6)
63 박준석(운리6)
65 신미선(광주대성6)
72 김재형(광주교대목포부설6)
73 이소윤(수완5)

※ 위 순서는 예선경연 순서이며 발표된 순서에 의해 본선 경연을 합니다.

본선은 4월 30일(금) 초등부 3·4학년에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아 독주회

5월 4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김정아 독주회가 오는 5월 4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김씨는 스페인의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티브로 피카소가 그린 대작을 주제로 한 김선철의 '게르니카'와 현대음악에 많은 영향을 미친 블레즈의 'Notations' 등을 들려준다.

또 이곳저곳을 떠돌며 짧은 생을 살았던 슈베르트의 쓸쓸한 모습이 느껴지는 슈베르트의 '소나타 D 959'이 연주된다.

이화여대를 거쳐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친 김씨

는 독일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헝가리 기요르, 서울, 광주에서 독주회를 가졌으며 광주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했다. 현재 광주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연 40분전부터는 작곡가 김선철씨가 금호아트홀 로비에서 이날 연주될 레퍼토리에 대한 해설을 진행한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11회 김영일 아동문학상

이남수씨 동시부문 수상

아동문학가 이남수(82)씨가 '제11회 김영일 아동문학상' 동시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은 동시·동요집 '지구를 사랑하는 꿈나무'.

나주 출신인 이씨는 조선대 및 동대학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보성중·광주 대촌중 등을 거쳐 정광고 교감으로 퇴임했다.

한국아동문학 작가상·정소파시조

문학상·황산고두동문학상·광주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낸 책으로는 '꽃비 내리는 별밭' '고향 그 박꽃' '지구를 사랑하는 꿈나무' 등 동시집과 '꽃비 내리는 춘성정' '도시에서 부는 바람' 등 시조집이 있다.

시상식은 내달 8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크로스 오버 실내악단 '새늘' 공연

5월 6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5월 첫번째 목요상설 공연 출연자로 크로스 오버 실내악단 '새늘'을 초청, 무대를 꾸민다. 5월 6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

'4개의 신선함, 4개의 친숙함'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 '새늘'은 다양한 퓨전 국악곡들을 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가야금과 건반이 어우러져 서정적인 멜로디를 들려주는 '선물', 대금과 건반이 함께 연주하는 '꼬맹이 가다', 국악가요 '오나라', 국악 동요 '산도깨비' 등이다.

또 흥겨운 세마치 장단이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너영나영'을 보사노바와 쌈바 리듬으로 재편곡해 선보인다.

마수미·김보람·강나루·김윤지·최주성·정미선·임영석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